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5호 【루게 제24508호】 주제 103 (2014)년 4월 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

1. 4 분기계획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올해를 멋있게
축하할 수 있게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집행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총
돌격전에 펼쳐나신 인민경제 여
러 부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분기간 증산투쟁을 활발히 벌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
한 그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진
진의 기상을 떨쳐가는 우렁찬 생
산의 풍을 일으켜 모든 초소, 일터
마다서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부여비를 총동원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에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생산을 확대해나갔으며 공장
자기공정, 신의주전자기구공
정, 회천역에 공인전자기구공
정

을 비롯한 판리국에 다른 공장
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
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단
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건설장, 보산체질소를 비롯한 인
민경제 여러 부문에 많은 뽀
뽀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전력착암기공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마
련되어있는 생산잠재력과 내
부에 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능을 높이며 선차적인 힘
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
하여 원단위소 비기준을 낮추
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착암기공정 생산을 일
정계획대로 내밀었다.

회천탄광기공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북부지
구의 여러 탄광들이 나가
해당 단위

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부
족되는 탄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발이 달도록 뛰고
또 뛰었으며 신의주광산기
공정, 장산전기공정, 선천
전기공정, 선천전기공정
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원료, 자재보장조건이 어려
운 속에서도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어 지표별계획
수행에서 혁신을 창조하였
다.
동림광산기공정, 동림전기
공정, 장산전기공정, 선천
전기공정에 다른 공장들의
로동계급도 들끓는 대고조
전투장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선차적인 전투적기
세를 띠고 있는 이 곳 판리
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나라의 재부를 늘려
애국의 한마음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판리
국의 일군들은 결의표
를 명백히 세우고 아래단
위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
가 계획수행에 대중을
적극 불려일으키는 한편
시추작업에 필요한 자
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나가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판리국
에서는 지질탐사대에서
대중의 창조적열의가
비상히 앙양되고 집

철도수부문의 일군들과 수
송선사들이 1. 4분기 화물수
송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뜻깊은 올해 화물수송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열의의 안고 펼쳐나신 철도
성공과 각지 철도국의 일
군들은 편만부문의 긴밀
한 관계밑에 중요물동수
송에 큰 힘을 넣으면서 수
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
으로 해나갔다.

합동철도국에서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동상태에 맞게
방향별, 구간별에 따른 수
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물동수송에서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기관차와
화차배차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중중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울려
들어와서만도 농업부
문에 많은 영농물자들을
실어다짐으로써 농업근
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진하였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청년철도국의 일
군들은 1. 4분기에 년간
산지로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년간 산지로나무생산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혁신자대목에는 선진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경
쟁을 맹렬히 벌려온
로동자, 기술자들도
있다.
강계목재2공정에서도
매일 생산계획을 2배
이상으로 수행하는
혁신자대목이
수출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림업판리국
에서 1. 4분기계획을
기반전에 걸쳐
수행하였다.
대흥림업사업소,
덕천목공

림업성에서 1. 4분기
로동계급을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부단치는 난관을 자
신의 힘으로 뚫고 나가
면서 겨울철조건에서도
매일 높은 세운 전투적
기세를 이어나갔다.
평안북도림업판리국
에서 1. 4분기
로동계급을 수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부단치는 난관을 자
신의 힘으로 뚫고 나가
면서 겨울철조건에서도
매일 높은 세운 전투적
기세를 이어나갔다.

산사업소에서 일을 잘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단치는
난관을 자의 힘으로 뚫
고 나가면서 겨울철조
건에서도 매일 높은 세
운 전투적기세를 이
어나갔다. 평안북도
림업판리국에서 1. 4
분기 로동계급을 수
행하였다. 이곳 일군
들과 로동계급은 부
단치는 난관을 자의
힘으로 뚫고 나가
면서 겨울철조건
에서도 매일 높은
세운 전투적기세
를 이어나갔다.

을 높이기 위하여 매
일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끝내
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
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강계
목재공정, 선천체
질공정, 선천체질
공정, 선천체질공
정, 선천체질공정
을 비롯한 여러 공
장들의 로동자, 기
술자들은 이미 마
련되어있는 생산잠
재력과 내부에 비
를 남김없이 동원
하여 생산능을 높
이면서 선차적인
힘을 높이고 과학
기술에 의거하여
원단위소 비기준
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면서 착암기공
정 생산을 일
정계획대로 내
밀었다.

회천탄광기공정의 일
군들과 로동자, 기
술자들이 북부지
구의 여러 탄광
들이 나가 해당
단위들과의 긴
밀한 관계밑에
부족되는 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발이
달도록 뛰고 또
뛰었으며 신의
주광산기공정,
장산전기공정,
선천전기공정,
선천전기공정
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원
료, 자재보장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생산
을 중단없이
내밀어 지표
별계획수행
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동림광산기
공정, 동림전
기공정, 장산
전기공정, 선
천전기공정
에 다른 공장
들의 로동계
급도 들끓는
대고조전투
장을 계속 힘
차게 벌려나
가고있다.
경애하는 원
수님의 령도
따라 선차적
인 전투적기
세를 띠고
있는 이 곳
판리국의 일
군들과 로동
계급은 나라
의 재부를
늘려 애국의
한마음으로
더 많은 지하
자원을 찾아
내기 위한 투
쟁을 줄기차
게 벌리고
있다.

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르고있다.
특히 웅진지
질탐사대의 일
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애국의 한
마음으로 치
열한 불꽃
전을 벌려 수
십만 t의 광
물질을 비롯
한 지하자
국을 다른
공장들
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에서는 선진적
경쟁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청년
철도국의 일
군들은 편만
부문의 긴밀
한 관계밑에
중요물동수
송에 큰 힘을
넣으면서 수
송조직과 지
휘를 전투적
으로 해나
갔다.

합동철도국에서
기관차와 화차
들의 기동상태
에 맞게 방향
별, 구간별에
따른 수송조
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물
동수송에서
일군들과 수
송선사들이
기관차와 화
차배차조직
을 합리적
으로 하고
중중투쟁의
불길을 세
차게 지퍼
올려 울려
들어와서만
도 농업부
문에 많은
영농물자들
을 실어다
짐으로써
농업근로
자들의 투
쟁을 적극
고무추진
하였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
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청년
철도국의 일
군들은 1. 4
분기에 년간
산지로나
무생산계획
을 수행하
였다. 연간
산지로나
무생산계획
을 앞당겨
수행한 혁신
자대목에는
선진적 혁신
의 불길을
세차게 지
퍼올려 사회
주의경쟁을
맹렬히 벌
려온 로동
자, 기술자
들도 있다.
강계목재2
공정에서도
매일 생산
계획을 2배
이상으로
수행하는
혁신자대
목이 수출
하는 커다
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
림업판리
국에서 1. 4
분기계획
을 기반전
에 걸쳐 수
행하였다.
대흥림업
사업소, 덕
천목공

림업성에서 1. 4
분기 로동
계급을 수
행하였다.
이곳 일
군들과
로동계
급은 부
단치는
난관을
자의 힘
으로 뚫
고 나가
면서
겨울철
조건
에서
매일
높은
세운
전투
적기
세
를
이
나
가
다.

을 높이기
위하여 매
일 맡겨
진 인민
경제
계획
을
앞
당
겨
끝
내
었
다.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자
신
들
이
지
닌
임
무
의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선
천
체
질
공
정
을
비
후
의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서
중
요
성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있
는
강
계
목
재
공
정,
선
천
체
질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한다

평양시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 출동모임 진행

4일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언설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출동모임이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으로는 이른아침부터 출동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오는 사상일군들과 초급일군들, 방송선전차들이 렬을 지어 들어섰다.

수도의 거리를 들뜨게하며 달려오는 사상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 《결사옹위》, 《결사관철》 등 힘있는 포여들이 나붙어있었다.

광장에 들어서는 모임참가자들은 1970년대 약동하는 기상인 나라에 차넘치던 그때

처럼 수도의 모든 전투장소에서 혁명의 북소리, 대고조의 진군나팔소리가 순간도 멈출없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선 이미 준비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오전 9시 출동모임이 진행되었다.

출동모임에는 수도의 구역, 군,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선전일군들, 구역,공장,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원들을 비롯하여 선동원, 강연강사, 출판물보급원, 방송선전차 방송원 등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김일성광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당선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를 비롯한 힘있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출동모임에서는 해당 단위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부상상태와 음향설비, 방송선전차들의 기술상태, 선동원, 강연강사들이 리용하고있는 음향중복식메

가본들에 대한 료해사업이 있는 다음 평양시당위원회 비서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평양북산공장 방송원 김인선, 평양제약공장 선동원 박예영, 평양시예술선전대 배우 강동호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관철하는데서 모든 당사상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분렬행진이 진행되었다.

평양시의 10여개 대학의 대학생취주악대 수백명이 렬을 지어 노래 《발걸음》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연주하며 김일성광장을 지나갔다.

이어 단원별로 분렬행진이 진행되었다.

분렬행진이 진행될 때 방송선전차들이 울려나오는 힘있는 구호에 화답하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었다.

김일성광장을 떠난 취주악대와 각 단위 참가자들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건설자들과 함께 고구려를 세웠다.

서 건설하는 버섯공장건설장, 박막온실건설장을 비롯한 주요 전투장들에 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대학생취주악대와 함께 일도 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들이대어 온 건설장들을 불도가니마냥 들끓게 하였다.

이밖에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시안의 여러 전투장들에 달려나간 기동예술

선동대원들과 강연강사, 출판물보급원들 선전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 모든 전투장들에서 대중적혁신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출동모임을 계기로 시안의 주요전투장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전의 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글 특파기자 최수복
사진 본사기자 한광범
본사기자 김진명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에 기동적이며 집중적인 경제선동의 불길은 확�히 펼쳐졌다.

당사상일군선전대 건설장에 특색있는 선전대가 나타났다. 선교구역당위원회 일군들로 무어진 당사상일군선전대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출동모임에 앞서 비서 류송동무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있는 당일군들로 당사상일군선전대를 모으고 이렇게 전투장에 달려나갈것이다.

리성진, 김철웅, 김승혁동무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이 옷매동, 남신2동, 선교1동에서 나온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혁명가요의 선율을 맞추어 붉은 기발을 휘날리면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을 틀어쥐고 적극 떠맡어준 책임비서 강영호동무는 합숙건설장에 나온 공작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고무하고 지원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당사상일군선전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여 방송원 백영동무와 여러 단위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구동예술보급소의 종업원들도 전선위원들의 위대성으로서 선전을 기동적으로 벌릴수 있었다.

대학생취주악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출동모임에서도 그렇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에서 진행된 이번 집중경제선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대학생취주악대이다. 수백명으로 이루어진 이 취주악대가 시작부터 건설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이런 사연이 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이 이번 집중경제선동에 참가시켜 선군조선청년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부터 잘 짜고 들었다.

이렇게 되어 김일성종합대학, 건재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10여개 대학의 취주악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으며 훈련도 전투적으로 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곡들의 형성창조를 끝내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달려나왔기에 그들의 취주악은 시작부터 대중의 심장을 울려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대학생취주악대는 현장에서 무대를 옮겨가며 대학별로 경쟁적으로 힘찬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가슴마다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철범

방송포성과 노래폭풍속에 끓는 불도가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까.》

대중의 심장을 팡팡 울리는 평양버섯공장건설장에서 구역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된 경제선동활동은 건설자들의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었다.

보통강구역려단, 대동강구역려단을 비롯한 모든 려단의 건설자들은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제기하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하여 현대적인 버섯공장은 자기의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밝혀주신대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는 경제선동의 위력은 이렇듯 큰것이다.

본사기자 재인철

방송포성과 노래폭풍속에 최후승리를 위한 신심과 락관, 혁명적열정이 평양시의 여러 전투장마다 차넘치고 있다.

평양버섯공장건설장에서 구역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된 경제선동활동은 건설자들의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었다.

보통강구역려단, 대동강구역려단을 비롯한 모든 려단의 건설자들은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제기하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하여 현대적인 버섯공장은 자기의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밝혀주신대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는 경제선동의 위력은 이렇듯 큰것이다.

본사기자 재인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선율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손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불꽃을 이기는 건설자들의 손놀림은 번개같이 번쩍고 삼남에서는 불꽃이 일었다. 혼합물을 담은 맛살이를 들고 달리는 전투원들의 발걸음에도 노래가 울렸다. 노래와 함께 시간이 흐르고 노래와 함께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건설장은 말 그대로 노래폭풍이 안아온 정신력의 불도가니, 혁신의 불도가니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권

구역당위원회 비서 백영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사상공세작전을 펼친 때로부터 구역당을 비롯한 구역의 일군들이 체육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 달려나오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고 한다.

구역당위원회 부부장 정정철동무의 목소리도 뜨겁다.

《물동, 대신동, 문신1동, 령천2동, 신흥1동의 가두인민단원들도 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예술소품들을 준비해가고 달려오곤 합니다.》

그러니 체육관건설을 위해 온 구역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살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듯 전례없던 사상공세의 위력이 힘있게 파시되고있기에 체육관건설은 이제 시작을 떴지만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겠다는 전투원들의 결의가 빛나게 실현되리라는 확신이 우리의 심장을 팡 울려잡는다.

본사기자 리종석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박막온실건설장에서

《기동예술선동대》라는 붉은 완장을 두른 녀인들이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박막온실건설장으로 달려왔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달려온 사동구역안의 녀령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손에손에 붉은기를 들고 북소리를 울리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건설자들을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며 순간에 건설장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조국찬가》, 《강성부흥아

리랑》, 《홍하는 내 나라》, 《타오르라 우등불아》, 《뿌리가 되자》,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등 그들이 안고온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래폭탄이었다.

한편한편의 노래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며 온 건설장을 부글부글 끓여버리게 하였다.

제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강성부흥하는 조국을 일떠세우는 궁지와 자부심이 건설자들의 열골마다 뜨겁게 넘쳐흘렀다.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로 살려는 드넓은 각오를 안고 건설자들은 일손을 다그쳤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공맹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언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공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언설은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였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사상사업

을 확고히 앞세우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이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 기간 농업근로자동맹이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동맹원들을 농업생산투쟁에 령도해 준것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사회주의초전에서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언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공맹조직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전투대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

는데 동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며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화신선전, 화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공맹일군들과 동맹원들속에서 사회주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번바람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온 나라 협동법마다에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속에서 패배주의를 불사르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도높

이 벌리며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공맹조직들에서 사상일군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공맹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언설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온 나라 농촌을 들끓게 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서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수확고를 높이는 강병이종자피복방법

최근년간 각지 농촌들에서 강병이종자에 종자피복방법을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평균 10~15%의 일과를 더 증수하고있다.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문제를 중요한 고리로 두어주고 종자문제해결에 선자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강병이종자피복은 살충제, 살균제, 여러가지 비료, 식물성장조절제 등과 같은것을 결합제를 리용하여 종자겉면에 고르게 입혀 종자의 병저항성을 높이고 작물의 생육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몇해전부터 강병이종자에 종자피복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처음부터 잡질것은 아니었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시험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리 농촌들에서 받아들인데 의하면 명숙해충은 물론 여러가지 병을 막고 소출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일수 있었다.

도에서는 영양원소들을 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피복제도 만들어 리용하였다.

영양물질들을 배합할 때 서로 화학적작용이 없게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노소비와 함께 후민산염, 카리리탄비료, 금강약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합함으로써 농작물에 다량원소와 함께 미량원소들도 보충해 주어 생육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금강약물들을 미분하여 리용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더 높였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종자피복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결합제를 잘 만드는것이라고 한다. 결합제는 종자

에 영양과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잘 결합되게 하는 역할을 한기 위해 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고수원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 농업유기성제를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을 리용한 결과 피복물을 높일수 있었다. 강병이종자에 피복제를 입히는 방법을 보면 비닐밭마에 강병이종자를 적당한 두께로 퍼고 피복제를 뿌리면서 골고루 묻게 한 다음 그늘에서 일정한 시간 말려주면 되었다. 온산균을 비롯한 많은 균의 농도에서 종자피복방법을 받아들여 일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피복제를 입힌 종자로써 뿌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적로 해는 첫해에는 2%, 다음해에는 3%, 그 다음해에는 5% 증수하였다. 일군들은 여기서 신심을 가지고 고국에게 내밀었다. 그 과정에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었다.

우선 침투이행성농약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작물이 자라는 생육초시에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종자와 식물체를 보호하도록 종자피복제를 만든것이다.

일군들은 명숙해충과 여러가지 병이 발생할수 있는 지역들을 구역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맞는 농약들을 준비하여 종자피복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개천시의 농장들을 비롯한 여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한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삼지연에서 첫 공연 진행

모란봉악단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유서깊은 삼지연에서 광강도 순회공연의 첫막을 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예술은 선군혁명령도의 위력한 수단입니다.》

절세위인들께서 다녀가신 뜻깊은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4월 4일 오후 3시 모란봉악단의 첫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강사들과 관리원들, 감자산지의 계대군인들을 비롯한 농업근로자들, 군공기관 일꾼들과 공장, 기업소로력혁신자들 등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항일의 내대원들처럼 군복차림을 한 출연자들은 항일혈전의 나날 밀림속의 승전을 높이 올려가던 투사들처럼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공연으로 시종일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왔다.

여성독창 《희망년친 나의 조국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 2중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남성독창과 방창 《자녀애나 원수님 생각》, 여성 3중창 《하늘아래 첫 집》, 바이올린 독주와 경음악 《애곡과 흥모》, 여성 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여성중창 《인민의 환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를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에 올라 주면의 산발들을 볼 때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원수를 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찔하고 혈전의 그날에 울리던 총소리가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어 선군조국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지자 장내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위대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인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흥모의 열기로 세차게 설레었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인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흥모의 열기로 세차게 설레었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흥룡한 문화예술 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리일키는 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광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의 시작으로 삼지연군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지금 이곳 사람들을 커다란 흥분과 격정의 도가니속으로 이끌어가고있다.

눈덮인 백두밀림속의 유서깊은 고장을 뒤흔들며 봄우림마냥 울려 퍼지는 모란봉악단의 노래들은 끝없는 환희와 불같은 맹세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지연군 읍에서 살고있는 전평로병 최영화는 정말 희한한 공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사는 우리 삼지연군 인민들을 언제나 마음가까이에 두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대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고마와 또 울었다.

가슴을 혁명열로 세차게 끓게 하였다.

마지막종목으로 《인민은 일련단심》의 노래가 울려나오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서지자 우렁찬 박수갈채를 터뜨리는 관람자들 모두가 원수님의 따뜻한 정이 어려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공연이 끝났지만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가 너무도 커서 관람자들은 취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들은 정일이 변혁되는 공연을 보았다고, 정말 승리의 신심이 배배해졌다,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본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혁명의 전구들을 들춰보게 하던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과도 같은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온 삼지연 땅을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현지에서 전송)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본것 같다

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삼지연군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관람열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어제 오후 드디어 모란봉악단 공연이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내안원들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인민사랑이 깃든 《공명종목》이라고 씌여진 인쇄물을 받아드는 순간 사람들모두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모란봉악단공연을 보 는것만 해도 기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어린 훌륭한 인쇄물까지 받아안고보니 이 격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

르겠다고, 이것을 집안의 가보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만드는 길에서 제 1번수가 되겠다는 불같은 결의들을 토로했다.

숨을 죽이고 무대를 지켜보던 관람자들속에서는 저도모르게 환성이 터져나왔다. 가슴들과 연주자들이 모두 항일의 내대원들이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보냈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 땅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특색에 맞게 특색있는 무대의상과 종목들로 출연자들이 훌륭한 예술의 세계를 펼칠 때마다 객석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여성독창 《희망년친 나의 조국아》로 시작된 공연은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세르게 창창형상된 명곡들의

관람자들은 공연을 보면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으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흥성번영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특히 그들의 심금을 더욱 세차게 울려준 종목들은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여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여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못른다》 등이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까지에서 살고있는 궁지와 자부심이 그들의 열렬적인 박수소리에 뜨겁게 실려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북돋아주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혁명열로 세차게 끓게 하였다.

마지막종목으로 《인민은 일련단심》의 노래가 울려나오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서지자 우렁찬 박수갈채를 터뜨리는 관람자들모두가 원수님의 따뜻한 정이 어려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공연이 끝났지만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가 너무도 커서 관람자들은 취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들은 정일이 변혁되는 공연을 보았다고, 정말 승리의 신심이 배배해졌다,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을 본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혁명의 전구들을 들춰보게 하던 항일유격대의 연예공연과도 같은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온 삼지연 땅을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게 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현지에서 전송)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흥룡한 문화예술 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리일키는 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광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의 시작으로 삼지연군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지금 이곳 사람들을 커다란 흥분과 격정의 도가니속으로 이끌어가고있다.

눈덮인 백두밀림속의 유서깊은 고장을 뒤흔들며 봄우림마냥 울려 퍼지는 모란봉악단의 노래들은 끝없는 환희와 불같은 맹세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지연군 읍에서 살고있는 전평로병 최영화는 정말 희한한 공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사는 우리 삼지연군 인민들을 언제나 마음가까이에 두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대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고마와 또 울었다.

수필

백두의 횃눈을 바라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안겨주는 예술만이 참다운 예술이며 고상한 사상과 결합된 감정만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감동을 줄수 있다.》

4월은 산과 들에 꽃이 피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계절이지만 삼지연군에는 횃눈이 많이 내리었다. 때없이 눈이 내리는 고장이지만 요즈음 내리는 횃눈은 대하는 이곳 인민들의 감정은 유별하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이 깃든 물고기들과 영농물자들을 눈물속에 받아안아내어 이렇게도 보고싶었던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자기 고향에서 진행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져 세상만부다 자기들에게 차려지는것만 같아 커다란 흥분속에 사는 이들도이다.

단순히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서만이 아니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통하여서도 백두산기슭에서 살고있는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온갖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이 이들의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들어서이다.

항일혁명선열들의 뜻깊은

발차처가 어려워있는 삼지연에서 강위력을 띤 《모란봉》의 노래포성을 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서깊은 의도를 심장으로 새기는 사람들이 바로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 인민들이다.

지금 이곳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에서 삼지연의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모란봉악단을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열화같은 그이의 사랑을 가슴에 소중히 새겨안고있다.

우리는 커다란 흥분에 휩싸여 두손을 펼쳐들었다. 소복하게 내려쬐는 4월의 햇빛, 백두의 횃눈이 더없이 소중하게만 안겨왔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이 《모란봉》의 장엄한 노래 포성과 더불어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부려주는 축복의 꽃보라, 백두의 꽃보라처럼.

본사기자 김명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안겨주는 예술만이 참다운 예술이며 고상한 사상과 결합된 감정만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감동을 줄수 있다.》

4월은 산과 들에 꽃이 피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계절이지만 삼지연군에는 횃눈이 많이 내리었다. 때없이 눈이 내리는 고장이지만 요즈음 내리는 횃눈은 대하는 이곳 인민들의 감정은 유별하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이 깃든 물고기들과 영농물자들을 눈물속에 받아안아내어 이렇게도 보고싶었던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자기 고향에서 진행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져 세상만부다 자기들에게 차려지는것만 같아 커다란 흥분속에 사는 이들도이다.

단순히 모란봉악단공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서만이 아니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통하여서도 백두산기슭에서 살고있는 삼지연군 인민들에게 온갖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이 이들의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들어서이다.

항일혁명선열들의 뜻깊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 노래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21월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 노래모임이 3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차명운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본 일꾼들, 평원군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탄력을 지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볼 때의 정치사상강구, 군사강구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이 장재에

어머이수령님의 승고한 뜻을 받드시어 선군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민요리곡 《행복의 나나나난노》, 《본조농사 꽃이 피네》, 손풍금2중주 《갈밭이노래》,

제담 《종다》 등의 종목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농촌들이 사회주의신경으로 전변되고있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일련단심공제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의지를 담은 여성2중창 《우리

원수님》, 여성독창 《그이 없인 못살아》, 설화와 합창 《당이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비롯한 종목들이 펼쳐져 모임장소에 차려진 총정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설화와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못른다》로 끝난 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올레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철저히 관철하여 쌀로써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갈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 주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각인 민족의 상을 한 여성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구호가 반영된 선전화들은 출연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판독있는 예술단, 배우들을 비롯하여 열정을 잘 보여준 기량을 과시하는 가수, 무용수, 연주자들 그리고 세워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에는 세계지구화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 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었다.

선전화들에는 스톨야호뵐렌제의 년월을 봄 친선예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각인 민족의 상을 한 여성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구호가 반영된 선전화들은 출연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판독있는 예술단, 배우들을 비롯하여 열정을 잘 보여준 기량을 과시하는 가수, 무용수, 연주자들 그리고 세워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에는 세계지구화위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 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었다.

선전화들에는 스톨야호뵐렌제의 년월을 봄 친선예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각인 민족의 상을 한 여성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구호가 반영된 선전화들은 출연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판독있는 예술단, 배우들을 비롯하여 열정을 잘 보여준 기량을 과시하는 가수, 무용수, 연주자들 그리고 세워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에는 세계지구화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 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었다.

선전화들에는 스톨야호뵐렌제의 년월을 봄 친선예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각인 민족의 상을 한 여성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구호가 반영된 선전화들은 출연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판독있는 예술단, 배우들을 비롯하여 열정을 잘 보여준 기량을 과시하는 가수, 무용수, 연주자들 그리고 세워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에는 세계지구화위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제 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앞두고 선전화들이 출판되었다.

선전화들에는 스톨야호뵐렌제의 년월을 봄 친선예술축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지구를 배경으로 봄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각인 민족의 상을 한 여성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라는 구호가 반영된 선전화들은 출연이 내세우고있는 리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판독있는 예술단, 배우들을 비롯하여 열정을 잘 보여준 기량을 과시하는 가수, 무용수, 연주자들 그리고 세워있는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교예배우들의 모습을 형상한 선전화들도 있다.

선전화들에는 세계지구화위

제29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일조선인예술단 도착

제29차 4월의 봄 예술단이 4일 비행선에서 예술축전에 기로 평양에 도착한 참가할 재일조선인 예술단

로씨야연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대표단 귀국

웨. 웨. 그리슈코브레 변강위원회대표단이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이번주말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6일(일요일) 9시 울미도림, 소백수림과 부리 김일성경기장 등에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1급 1차편맹진경기가 진행된다.

남자경기는 선봉팀과 울미도림, 봉화산팀과 소백수림, 기관차팀과 리명수팀 사이에, 여자경기는 평양팀과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 LET US SING LOUDLY THE SONG OF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 주제 103(2014)년 4월 11일-17일

영웅의 숭고한 정신과 값높은 삶은 오늘도 빛을 뿌린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영광 광박대선영웅소대 광부들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적업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영광 광박대선영웅소대의 광부들에게 있어서 지난 2월 28일은 메사로온 날이 아니었다. 바로 이날까지 소대에 맡겨진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불같은 투쟁을 벌리던 잊지 못할 나날을 더듬어보며 이들은 소대쟁

우리는 영웅소대의 광부들이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소대를 박대선영웅소대로 명명한 날 소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경도표판앞으로 말없이 모여들었다.

박대선! 경제도표판의 제일 첫자리에 있는 영웅의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박대선동무가 뜻밖의 정황 속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던 두해전에는 그의 뭉치 합쳐 인민경제계획을 1.9배 이상 넘쳐 수행하였고 지난해에는 2배의 수확을 기록했었던 그들이 또다시 오늘의 실적을 놓고 영웅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박대선영웅의 숭고한 정신과 값높은 삶을 투쟁과 생활의 자로 간직하고 남았다.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이곳 소대원들, 이들의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는가.

모두의 심장마다 타오르는 불길마냥 간직된 이 글씨는 영웅이 남기고간 숭고한 뜻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려고 힘쓰는 일에 제일먼저 어깨를 얹어내려는 정신민이었고 그 길에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불굴의 의지였다.

늘어난 채광장들에서 더 요구되는 작업기회를 놓고 그들은 우물 찌다보지 않았다. 고장난 차량들을 수리하여 리용하였고 부족되는 부족품들을 광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채광장과 착암설비들이 증가되니 무엇보다도 모자라는것이 로력이었다. 하지만 영웅소대의 광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한명이 두명, 세명씩 일감을 겸비하고 파이프를 발파소리, 착암기소리를 울려가

는 소대의 전투장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었다.

어 남들이 신통해 보일지 주저하는 곳도 있었다.

누가 등을 떠밀어 들어선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택한 길이었다. 금광의 영웅소대원들의 눈앞에는 현대의 광성이라더 더 캐기 위해 위험한 막장굴에 남면저 자신을 세우고 후대들을 바쳐가던 박대선동무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막장조 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물러있는 한, 현대의 광성은 생의 가족들과 지친자들이었다. 우리 당의 장성국가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위훈의 구슬땀을 뿌려가는 광부들에게 노를 불려주는 가족들과 지친자들의 모습은 광부들에게 큰 힘으로 되었다. 그들속에는 자기들의 결단성에 차했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있는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의 아들과 머느리도 있었고 박대선영웅의 양해 김정순동무도 있었다.

이런 불타는 자각을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수천척지하막장을 지키고있다. 이런 애국의 광성을 지닌 인간들이 뿌려가는 땀방울이 이 나라의 광성산을 높이는 밑거름이었다.

영웅이 그들의 결을 떠나간 때로부터 두해 넘긴 세월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렇게 흘러

갔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나온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꾼과 광산의 일꾼들은 그들에게 한시바빠 안전한 채광장으로 옮길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웅소대의 광부들은 한결같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쪽공기가 부족하여 예를 먹을 때도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이곳 소대원들은 늘어난 채광장

들이 그들을 특별히 더 보살펴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보살피는 압축공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 바로 여기에서 출로를 찾았다. 어느날 소대의 막장정체로

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많은 후방물자를 안고 또다시 찾아온 소대원들의 가족들과 지친자들이었다. 우리 당의 장성국가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위훈의 구슬땀을 뿌려가는 광부들에게 노를 불려주는 가족들과 지친자들의 모습은 광부들에게 큰 힘으로 되었다. 그들속에는 자기들의 결단성에 차했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있는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의 아들과 머느리도 있었고 박대선영웅의 양해 김정순동무도 있었다.

이런 불타는 자각을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수천척지하막장을 지키고있다. 이런 애국의 광성을 지닌 인간들이 뿌려가는 땀방울이 이 나라의 광성산을 높이는 밑거름이었다.

영웅이 그들의 결을 떠나간 때로부터 두해 넘긴 세월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렇게 흘러

갔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나온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꾼과 광산의 일꾼들은 그들에게 한시바빠 안전한 채광장으로 옮길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웅소대의 광부들은 한결같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것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영웅의 뭉치 합쳐 한발

이것은 박대선동무의 고귀한 넋이 오늘도 령력히 살아 맥박치는 값높은 영성이며 광물생산 성과로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금광로동계급의 투철한 각오, 결사의 의지이다. 지난해 5월 박대선영웅소대의 이 한 채광장에서는 기계총계 가동하던 착암기가 갑자기 등등을 멈추었다. 언제 막장이 무너져내릴지 모르는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4개의 채광장을 동시에 타고 4개의 광로를 오르내리는 2배로 늘었고 발파소리를 최대한 높이며 증산돌격전을 벌리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직면한 사태는 이곳 소대의 광부들에게 함께 채광장을 살리다가 포기하는 가 하는 심각한 물음을 던지

고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나온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꾼과 광산의 일꾼들은 그들에게 한시바빠 안전한 채광장으로 옮길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웅소대의 광부들은 한결같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것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것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것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수 없는 영웅소대원들의 이 소소한 일꾼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일꾼들과 소대의 광부들은 한자리에 모여 애국의 영웅의 뭉치 합쳐 수행할 생산 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천을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로는 조용히 눈빛을 주고 받고있었다. 현재 소대의 인적, 물질조건을 타산해볼 때 펼쳐놓은 목표인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 능과 불가능을 논하는 사람은 현명도 없었다. 소대장 우순환동무가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긴말은 필요없습니다. 중요

한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것

《저속에는 아직도 캐내지 못한 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광로동계급의 광성의 기쁨이므로 되게 할수는 없습니다.》

나머지광석을 모조리 캐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가 나세게 되었다.

전투가 벌어졌다. 착암기소리, 발파소리가 려이 울리는 속에 한m, 또 한m 정도가 전진하였다. 소대원들의 얼굴에서도, 현장을 뜨지 않고 그들과 함께 착암기를 틀어잡은 연합기업소와 광산의 책임일꾼들의 얼굴에서도 후더운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위험한 구간에 묻혀있던 3 0 0 0 t의 광석은 이렇게 소대의 생산실적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해 《미식령속도》를 창조한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사적인 호소문에 힘입을 때로부터 소대원들의 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채광장이 종전보다 더 늘어났고 막장의 전진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어떤 때는 공기배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였다. 하지만 이들은 부족되는 배관을 위에서 보강해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순간도 전진을 멈출수 없다. 지금이 시각도 박대선영웅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남들이 할수 없는것을 해내는것이 바로 영웅소대원들의 기질이다. 그것이 한명의 광성이 아니라 더 빨리, 더 많이 광성을 지니는 자들이라면 이들이 어떤 길인들 주저했으랴. 수십m의 배관을 자체로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위험한 장소에 서슴없이 웃으며 뛰어 들어갔다. 《시각 이곳 소대의 광부들은 박대선영웅과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하막장에서 영웅과 함께 착암기도 돌리고 발파소리도 높이 울려가던 영웅의 동지들이었다. 위험한 순간에 박대선동무가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구원하고그의 동지들이었다. 영웅의 뭉치 합쳐 한발과 더! 부족되는 한m, 한m의 배관을 이렇듯 자체로 해결하고 또다시 막장마다에서 발파소리 높이 울릴 때 영웅소대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뜨거워진 것이 흐르고있었다. 울헤에 들어와서도 이들은 합리적인 채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원가를 절감이나 줄이면서도 광물생산량을 부쩍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완공날자는 절대로 드릴수 없다

평안북도려단에서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주요경쟁의 불길속에 날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었다.

자연도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러는듯 비까지 쏟아져내렸다. 순식간에 전투장은 감람판으로 변하였으니 어떤 구간에는 무를까지 물이 차올랐고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기적이 창조되었다. 이 나날 이들은 3 8 0 0 m²의 양반과 1 1 0 0 m²의 토광을 처리하고 반나절동안에 4 0 m²의 콘크리트복공사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반편 더, 반편 더》라고 소리치며 함파를 휘두르는 돌격대원들, 화선식정치를 정황에 맞게 진행하면서 질풍을 지고 달려가는 정지일꾼들,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온 전투장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기술지도를 앞세우는 시공과장 최철철동무 비롯한 기술일꾼들...

《복이 우리 돌격건설자들을 지켜보셨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현장방승기에서 울려나오는 방승원의 힘찬 목소리가

성철동무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1 0 년을 1 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우렁하니 마시명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황해남도물길건설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호소에는 내 건설장이 더욱 세차게 뛰어내린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저수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립시다.》

